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 인문한국(HK) 평화인문학연구단 아젠다 소개

1) 연구목표

본 연구 사업은 한국사회에 필요한 미래비전으로서의 평화(peace)를 종합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다학제적, 융합적 연구 프로젝트이다. '21세기 녹색한반도를 위한 평화인문학'을 주제로 하는 이 연구는 한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생태론적 문제의식까지 포괄하는 문명론적 평화연구가 필수적이라고 보고 이에 필요한 담론과 제도, 가치와 문화의 창출을 지향하고자 한다.

우선, 본 연구사업이 지향하는 평화인문학은 20세기까지의 역사적 경험에 대한 분석에 바탕하되 21세기 미래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끌어가려는 가치지향적 전망을 포괄하는 융합적 연구가 될 것이다. 전쟁방지나 분쟁해결에 주목했던 초기 평화학이 현실과학적 분석과 예측에 주력했던 것과는 달리 본 연구는 인간의 심성, 가치와 정서, 담론과 습관의 차원까지 포괄하는 인간활동의 전영역에서 평화를 탐구하는 평화인문학을 지향한다. 평화를 주로 전쟁억지의 관점에서 바라보던 전통적 시각이 국가 간 관계에 주목한데 비해 이 사업이 지향하는 평화학은 평화를 모든 형태의 폭력과 위협과 연관시켜 광범위하게 검토하고자 하며, 국가 이외의 개인과 공동체, 문명과 담론질서까지를 연구의 대상에 포괄하고자 한다. 당연히 평화를 구체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못지 않게 그것을 가능케 할 철학적 사유, 예술적 상상력, 종교적 가치에도 깊은 관심을 기울이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사업은 전세계에서 진행되는 평화 연구의 흐름과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연결해 '21세기 한반도발 평화론'을 구성하고자 한다. 평화는 기본적으로 지구 보편적 가치이고 이미 유럽을 비롯한 전세계에서 많은 연구와 논의들이 진행되고 있는 주제이지만 그 논의 속에 현재 한반도가 겪고 있는 조건들이 충분히 녹아있지는 못하다. 따라서 그러한 논의들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이를 한반도 상황에 적용하기 위한 창조적 변형작업이 불가피하다. 한반도에 필요한 평화는 남북 분단의 구조와 이와 연관된 한반도 주민들의 삶의 조건과 결합되어야만 비로소 구체성을 획득할 수 있다. 나아가 한반도의 특수한 조건을 통해 강대국 중심이 아닌 중간규모 국가의 차원에서 논의되는 새로운 평화론의 세계화를 추구할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남북한의 지배 이데올로기, 대결구조, 평화체제 논의 등을 이해함과 동시에 우리 사회의 문화, 가치, 생활양식, 담론, 습관과 사유의 틀 등에 대한 깊

이 있는 성찰을 수행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사업이 평화인문학은 현실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정책학적 함의와 중장기적인 가치형성, 문화 창조, 비전구축의 상호연관성에 주목함으로써 사회과학적 분석과 인문학적 상상력의 창조적 결합을 이루고자 한다. 한반도 현실에서 평화론은 불가피하게 통일, 안보, 군축, 비핵화 등 정치적이고 군사적인 차원과 떨어질 수 없으며 따라서 현실과학적 성격을 부정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그 차원에만 머물러서는 평화학의 발전에도 한계가 있을뿐더러 실천적 차원에서도 단기적인 대응론에 한정될 우려가 있다. 우리에게 필요한 평화학은 보다 장기적인 전망, 종합적 구상, 문명론적 실천까지 포용할 수 있는 역사적 비전이며 이는 인간의 제조건을 고려하는 인문학적 상상력에 바탕을 두어야만 얻어지는 큰 그림이다. 인권을 존중하는 문화, 종교 간의 공존, 다른 정체성에 대한 관용, 생태적인 평화 형성, 성별 평화 등은 물론이고 기후변화나 광우병, 테러리즘과 정체성위기 등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문명적 대안형성도 연구의 내용에 포괄될 것이다. 이런 종합적 평화연구를 통해 테러리즘의 위협과 생태환경의 위기, 기술합리성의 부작용 등이 커지고 있는 시대적 조건 속에서 한반도에 새로이 요청되는 21세기형 인문학의 창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기대효과

본 연구는 학문적·정책적으로 다음과 같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첫째, '21세기 녹색한반도를 위한 평화인문학' 사업은 학술적 측면에서 평화를 주제로 한 인문학의 새로운 지평을 확장해줄 것이다. 지금까지의 평화론은 대체로 학제적 인문학의 주제로 발전하지 못했으나 본 연구는 평화의 가치를 여러 학문영역에서 간학제적으로 접근함으로써 담론과 제도를 연결시키고 사회과학과 소통하는 종합적 인문학으로서 자리매김될 것이다.

둘째, 이 사업은 급속히 변화하는 21세기 인류사회의 변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인문학의 정책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현대사회의 복합적 문제를 창의적으로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인문학의 역할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데, 본 연구는 평화의 인문학이 21세기 인류의 미래개척에 대한 희망을 실질적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인문학은 물론이고 사회과학과 자연과학, 예술분야까지 포괄하는 총체적인 미래담론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나아가 한반도 차원을 넘어서 지역협력과 세계사적 차원의 평화문화 형성과 소통에 정책적으로 기여할 것이다.

셋째, 신진 인문학자들의 연구활동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학문공동체의

지속적인 발전과 신진연구인력 개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인문학과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를 통합적으로 연구하는 신진연구인력을 적극 개발하여 미래한국의 지식발전에 기여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다. 특히 남북통일 분야에서 인문학적 평화와 제도론적 평화 형성 과제를 풀어나갈 책임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이다.

넷째, 한반도의 미래구상과 통일평화관련 분야에서 연구와 교육을 연계시킴으로써 연구와 교육간의 상호소통과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사업이 진행되면 연구결과를 본 연구사업에 참여한 연구인력을 현재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이 운영중인 [남북관계] 수업과 [통일아카데미] 과정에 투입함으로써 HK 연구인력을 교육활동에 효율적으로 연계시킬 수 있게 된다. 이 연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 본교의 대학원 협동과정으로 [평화인문학], [한반도형 평화학] 등 강좌를 개설하여 교육인력으로 활용함으로써 연구결과를 대학원 교육과 연계하는 효과도 가져올 것으로 기대된다. 나아가 이러한 연구결과를 [통일평화 지도자과정]에 접목시킴으로써 지역사회의 기대와 수요에 부응하고 시민사회와 공유할 수 있는 효과도 갖게 될 것이다.

3) 연구요약

"21세기 녹색한반도를 위한 평화인문학" 연구의 구체적 주제와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평화인문학은 인간의 문화생태적 삶의 양식과 평화의 관계를 탐구한다. 문화생태적 삶의 양식으로 구현된 평화는 문화적 평화와 생태적 평화의 양자 모두를 포함한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평화를 제도화함과 더불어 인간 사회와 자연의 유기적 관계성에 바탕을 둔 문화생태적 평화론을 구성한다.

둘째, 생활세계의 소통화해와 평화의 문제를 다룬다. 평화의 가치는 거시적이고 체제적인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의 미시적 영역에서도 평화가 작동할 수 있는 상황, 즉 '사람의 평화'와 '일상생활의 평화'를 증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점에서 현재 남북한 간에 존재하는 각종 인도적 사안들(이산가족문제, 납북자문제, 인도주의 지원 등)을 '사람의 평화' 관점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평화의 제도화를 연구한다. 평화의 가치가 단순한 담론이나 개인적 삶의 선택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의 여러 영역에서 제도화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화의 제도화는 이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된다. 이는 인문학적 가치를 사회

과학적 영역으로 확산하는 문제이기도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평화의 가치와 제도적 평화의 조화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평화인문학은 평화의 가치를 사회의 발전 정책과 평화체제의 형태로 구체화되어야만 실질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점에서 사회발전과 평화형성의 제도화를 주요한 연구주제로 다룰 것이다.

넷째, 학제적 인문학의 대상으로서 평화의 주제를 다룬다. 평화인문학은 철학적 사상으로부터 정치적 전략, 문화적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결되는 종합적인 담론체계이다. 이 평화인문학은 철학과 역사, 정치와 사회, 일상과 문화를 융합적으로 접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다. 이런 점에서 종합담론체계로서 평화인문학을 학제적 인문학으로 정립하는 것이 이 연구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이다.

이러한 연구주제를 단계적으로 진행하기 위해 1단계 3년은 "평화인문학의 문화생태적 구성"이라는 주제 하에 평화의 가치지향에 대한 한국적 담론과 구조를 분석하고, 평화의 담론형성에 선도적 집단인 환경운동과 종교계의 평화 지향에 대한 논의를 분석한다. 21세기 녹색한반도 미래가치로서의 평화인문학은 그 출발점이 자연과의 평화라는 관점에서 평화의 문화생태적 차원을 집중 조명한다. 문화생태적 삶의 양식으로 구현된 평화는 인간사회와의 평화를 도모하는 동시에 자연과의 평화를 목적으로하는 생태평화를 지향한다. 이런 측면에서 첫 번째 단계에서는 인간의 문화와 생태적 환경을 평화인문학의 분석영역으로 설정하였다.

제2단계 3년은 "평화인문학의 제도화 가능성 모색"이라는 주제로 1단계에서 분석한 현재의 한반도 평화인문학의 문화생태 및 정치사상의 기초 위에 통일에 대비한 사회발전과 미래지향적 평화인문학의 제도적 측면을 살펴본다. 즉 한반도의 미래구상 패러다임으로서 발전의 가치를 통일과 평화로 어떻게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인지, 그리고 평화인문학이 한반도의 통일과 평화형성이 기여할 수 있는 사상과 제도로서 어떻게 기능할 수 있는가를 탐색한다.

마지막 제3단계 4년은 "미래지향적 융합지식체계로서의 평화인문학"의 주제 하에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소통하고 확산할 수 있는 평화인문학의 융합지식체계 구성을 모색할 것이다. 평화인문학은 철학적 사상으로부터 정치적 전략, 문화적 생활양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연결되는 종합적인 담론체계이다. 따라서 종합담론체계로서 평화학을 학제적 인문학으로 정립하는 것이 이 연구의 마지막 주제가 될 것이다.